

# 국제 기도의 집 대학교-マイク ビ클

스가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

## 제 5 장: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은혜 (슥 4:1-14) (Grace to Build the House of Prayer)

### I. 복습

- A. 스가랴의 4 번째, 5 번째 환상 (슥 3-4 장)은 모든 여덟개의 환상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기름부으셔서, 그들이 처음 세 개의 환상에도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슥 1-2 장) 부르심과 축복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볼 수 있다. 스가랴의 6, 7, 8 번째 환상들은 스가랴 5-6 장에 나오며 함께 묶을 수 있는 내용이다; 금식에 관한 메시지는 스가랴 7-8 장에 나온다.
- B. 처음 세 가지 환상들에서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친히 거하심으로 그분의 열심과 자비를 나타내시며, 성전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며,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차지하시며,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순종하도록 이끄실 것을 약속하신다 (슥 1:16; 2:10-12).
- <sup>14</sup>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sup>16</sup>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성전]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슥 1:14-16)
- <sup>10</sup>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sup>11</sup>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sup>12</sup>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 (슥 2:10-12)
- C.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요 지도자들을 보았는데 (슥 3-4 장), 이 환상이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제사장으로서의 국가적 부르심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출 19:6; 사 61:6).
- D. 이 두 환상들은 두 주요 지도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 E. 이 두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두 명의 주요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슥 3 장)와 총독 **스룹바벨** (슥 4 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영적 상태와 경험은 그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경험에 영향을 준다.
- F.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언급하신다. 첫째는 **우리의 죄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슥 3 장). 둘째 장애물은 **부족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 (슥 4 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 G. 주님은 스가랴 3 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3:3-7). 스가랴 4 장에서는 그들의 일이 작고 어려울 때 조차도 그들의 일을 도우시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 (4:6-10). 다시 말해서, 주님은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전심과 성실함을 원하신다.
- H.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째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를 한다는 거짓말**이다 (3:1-5). 그 다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다는 거짓말**이다 (4:6-9).

- I. 스가랴 3-4 장의 메시지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다. 이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이며 (슥 3 장), 우리의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슥 4 장).



금 등잔대. 스가랴 4 장

## II. 다섯 번째 환상: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4:1-14)

- A. **요약:** 성전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모습이다.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받기 위해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는 (4:2b) 일곱개로 뻗은 등잔대 (메노라)를 보았다. 이 등잔대의 일곱개로 뻗은 부분들의 각 끝에는 기름 그릇과 연결되는 관이 붙어 있는 (4:2c) 타오르는 등잔이 있었다.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 옆에 서 있었다 (4:3). 감람나무 두 가지들은 기름이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그릇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주는 두 개의 금으로 된 파이프에 연결된 용기(연장된 관) 안으로 기름을 떨어뜨렸다 (4:12).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등잔들이 계속 불타도록 사용하신 두 기름부음 받은 리더들을 상징한다 (4:14).

<sup>2</sup>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sup>3</sup>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sup>12</sup>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sup>14</sup>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슥 4:2-3, 12, 14)

- B. 이 환상은 스룹바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하고 모든 방해들을 극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종들(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시고 초 자연적으로 도우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어떤 사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C. 스가랴서 4 장은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진리의 등대로서의 부르심(사 60:1-3; 62:1-2)을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메시아 아래에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보여준다. 제사장 나라이 이스라엘이 타락에서 정결케 된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제사장적 부르심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이 나라를 향해 가지셨던 부르심인 열방에 진리를 증거하는 제사장적 부르심을 충만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슥 3-4 장).
- D. 이 환상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 등잔대와 관련된 상징 (4:1-5), 두 예언적 말씀(오라클, 4:6-7, 8-10),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 (4:11-14).
- E. 스가랴는 BC 519년 2월 15일에 이 환상을 받았고 (1:7), 이 때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BC 520년 9월 22일의 다섯달 후였다 (학 1:12-15).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의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BC 520년 9월부터 BC 516년 3월; 스 6:15).
- F. 스룹바벨은 예배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을 공급하였다.

<sup>47</sup> 스룹바벨 때 …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쓸 뜻[돈]을 주되 (느 12:47)

- G.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룹바벨은 이 환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필요했기에, 설명해주는 천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일곱번 한다 (1:9, 19, 21, 4:4, 11, 12, 6:4). 그는 이 환상에서만 세 번 질문을 한다 (4:4, 11, 12). 이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 따라야 할 모델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나가다가 멈추고, 각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보고 느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대화할 때, 그분은 분명히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것이다 (요 16:13).

<sup>13</sup>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 16:13)

### III. 등잔대 환상의 상징 (4:1-5)

- A. 스가랴는 등잔대(메노라)가 두 감람나무 옆에 있고 그 꼭대기에 그릇이 있는 것을 보았다 (4:3)

<sup>1</sup>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sup>2</sup>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sup>3</sup>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으나이다 하고 <sup>4</sup>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sup>5</sup>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슥 4:1-5)

1.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설명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그가 본 것을 이해했는지 물었다 (4:2a). 천사는 스가랴가 집중만 하면 이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성전의 상징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스가라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천사에게 묘사하기 위해 주의깊게 보았다 (4:2b-3).
2. **등잔대:**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와 진리의 빛의 증인이 됨을 상징한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 a.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열방에 빛이 되는 것이다 (사 42:6; 49:6; 60:1-3; 62:1-2; 마 5:14-16; 6:22-23; 막 4:21; 놀 2:32; 8:16; 11:33; 12:35; 요 1:4-8; 5:35; 8:12; 9:5; 12:46; 앱 5:8; 빌 2:15; 살전 5:5; 계 1:20; 11:4).
  - b. 모세의 성막의 성소에는 빛나는 금 등잔대가 있었다 (출 25:31-40). 솔로몬의 성전 성소 안에는 열 개의 금 등잔대가 있었다 (열상 7:49).
3. **일곱 등잔과 관(파이프):** 등잔대에는 가지처럼 뻗어나간 일곱 등잔이 있다 (4:2c). 이 등잔들은 등잔대 위에 있는 그릇과 각각 관(파이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곱 관(파이프)은 일곱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름이 통과하는 도관이었다. 일곱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빛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
4.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다 (4:3). 성전에 있던 등잔은 계속해서 감람(올리브)유를 태웠다; 이는 절대 꺼진 적이 없었다 (출 27:20).
5.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라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4:4). 천사는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스가랴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이는 그가 집중한다면 이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천사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스가랴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스가라는 감람나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두 번 더 질문을 했다 (4:11, 12). 스가랴와 천사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인간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3:7; 4:10), 기도들 (3:5)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3:5, 4:2, 4:5, 11-13)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가시키는 데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 IV. 다섯 번째 환상의 메시지 (4:6-10)

- A. 이제 설명해주는 천사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4:4)라고 묻는 스가랴의 질문에 두 개의 예언적 말씀들 (4:6-7, 8-10)과 함께 답을 준다. 천사는 하나님의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비추어 감람나무에 대해 설명한다. 이 두 예언적인 말씀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스룹바벨이 성령의 초자연적 도우심으로 성전을 완성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B. 주님은 스룹바벨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극복하도록 초자연적으로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비록 작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가치있게 여기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4:6-10).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가치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부지런하게 섬겨나가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는 반대의 산에 부딪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어떤 임무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C. 첫 번째 예언적인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성전이 재건되고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것이라는 것이다 (4:6-7).

<sup>6</sup>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sup>7</sup>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 4:6-7)

1. **스룹바벨:** 여기서 그는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슥 6:12).

2.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과 능이라는 단어들은 인간의 능력과 자원들을 뜻한다. 스룹바벨은 그의 주된 소망을 페르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나, 백성들의 재정적인 능력에 두어서는 안됐다. 인간의 능력은 장애물의 산들을 제거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노력하는 인간의 가치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한계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의 노력은 주님의 목적들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3. **나의 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스룹바벨의 주요한 자원은 성령의 일하심이었다. 성전 재건의 일은 인간이 기울일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들을 넘어서는 훨씬 큰 것이다. 우리가 맞서야 할 일반적인 거짓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군사 용어로써,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다 (4:6).

5. **산:** 이것은 스룹바벨을 가로막아 서는 많은 장애물을 뜻한다. 주된 장애물에는 네 가지가 있다: 사마리아의 정치적이고 내적인 반대 (스 4:1-8; 5:6-17);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 타협, 두려움, 반목 (1:2-4; 8:10; 학 1:2-4, 9); 가뭄과 농업 실패로 인해 격화된 경제 위기; 예루살렘의 황폐함-도시는 여전히 황폐해 있었고, 민간 기간시설은 부족했으며, 이전 성전의 잔해는 청소되어야 했다.

6. 종말론적인 산들(장애물들)은 상업과 음행을 포함할 것이다 (계 17 장).

7. **평지가 되리라:**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생긴 잔해 더미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었다.

<sup>7</sup>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 4:7)

<sup>7</sup> 오 큰 산아,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한글 KJV: 속 4:7)

8. **머릿돌을 내놓으리니**: 머릿돌은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정해진 자리에 놓여졌다. 스룹바벨은 이 말씀을 BC 519년 2월 15일에 받았고 (1:7) 약 3년후인 BC 516년 3월에 성전 건축을 완료했다 (스 6:15).

9. **은총이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은 방해하는 산들이 제거되도록 하는 일의 일환으로, 매일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외쳐야 했다.

- D.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산이 옮겨질 것에 대해 예언했던 시기는 다리오왕이 사마리아의 페르시아 총독, 닷드내에게 스룹바벨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고 그에게 재정적인 공급과 도움을 주도록 명령한 것과 같은 정확히 같은 때의 일이다 (스 6:6-17). 다시 말해, 주께서는 정치적 장애물들을 즉시 제거하시고 페르시아로부터 재정적인 자원들을 보내신 것이다.

<sup>6</sup> 이제 총독 닷드내는 … <sup>7</sup>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 <sup>8</sup>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한글 KJV: 속히 주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한글 KJV: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하라 <sup>9</sup>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 <sup>11</sup>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sup>13</sup>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 총독 닷드내가 신속히 준행하니라 … 성전 일을 끝내니라 (스 6:6-13).

## V. 하나님의 두 번째 예언적 말씀 (4:8-10)

- A. 두 번째 예언적 말씀 (4:8-10)의 메시지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료했을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명확해질 것이다 (4:9).

<sup>9</sup>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슥 4:9)

1.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두 번 놓았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 두 번째 해가 되는 BC 536년이었다 (스 3:10). 두 번째는 16년이 지연된 후인 BC 520년이었다 (8:9; 학 2:18).
2.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설명하는 천사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칠 것을 약속했다 (4:9). 그는 3년 정도 후에 그 일을 마치게 된다 (스 6:14-15).
3.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너희(너)” 혹은 스가랴는 주님(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너희” 혹은 “나”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는 이를 여호와의 사자(혹 예수님)가 스가랴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스가랴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호와의 사자(예수님)는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구절을 세 번째 환상에서 세 번을 사용했다 (2:8, 9, 11). “나”는 스가랴서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1-12; 2:8-9, 11; 3:1, 5-6).

- B. 주님은 스룹바벨이 작은 일을 행할 때에도 그의 섬김과 성실함을 기뻐하셨다 (슥 4:10).

<sup>10</sup>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슥 4:10)

1. **다림줄:** 다림줄은 건축 계획의 초창기 때 사용되던 도구로 기초 구조가 놓여질 때 사용된다.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붙잡았을 때, 그는 책임감과 함께 성전 건축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다.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집을 짓는 책임을 받아들일 스룹바벨의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들은 그 일이 얼마나 작든, 얼마큼의 인정을 받든지 간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시편 132 편의 불타는 서약이 있으며, 어려움과 단조로움을 지날 때에도 부지런히 행하는 자들이다.
2. **여호와의 눈:** “이 일곱”은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닌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그 분의 눈은 우리의 원수들, 필요들, 장애물들, 노력들, 눈물들,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보신다.
3.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을 보시고는 기뻐하셨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일이 진보되어 가는 각 단계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4.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의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어렵고 작은 사역을 맡고 있는 자신의 지도자들이 성실히 이를 섬겨나가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을 하찮은 것으로 멸시한다 (슥 3:12; 학 2:3). 4 개월 전인 BC 520년 10월 15일에 학개는 일을 멸시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그들에게 권했다.  
<sup>3</sup>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나 <sup>4</sup>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3-4)
5. 중요한 핵심은 항상 바르게 “보는 것”이다. 사소함의 “다림줄 시즌”에 우리는 방해하는 산들이나 우리의 실적의 작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을 멸시할지 또는 즐겁게 할지가 결정된다.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은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다림줄은 건물의 크기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완성도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이 얼마나 큰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르게 행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어려운 일은 돌들과 목재를 나르고 자르는 일도 포함된다 (슥 5:8; 학 1:8a).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작은 일들을 가치있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 1:8c).  
<sup>8</sup> 성전을 …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슥 5:8)  
<sup>8</sup>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 1:8)

## VI.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 (4:11-14)

- A. 설명해주는 천사는 두 감람나무의 뜻을 설명한다 (4:11-14).

<sup>11</sup>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sup>12</sup>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sup>13</sup>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sup>14</sup>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슥 4:11-14)

- B. 무슨 뜻이니이까: 스가라는 감람나무가 뜻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묻는다. 그는 세 번이나 설명을 요청했다 (4:4, 11, 12). 그는 감람나무에 대해 물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질문했다 (4:12).

- C.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두 번 묻는다 (4:5, 13). 마침내 그 천사는 스가랴에게 대답한다 (4:14).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찾고 구하기 전까지, 주님은 대개 다양한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

- D. 감람나무 두 가지: 그는 감람나무의 두 가지들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이 가지에서 공급되는 감람 (올리브)유는 두 개의 금으로 된 관(파이프)이 연결되는 저장소로 흘러가며, 이는 다시 등잔대 꼭대기의 그릇(주발)으로 흘러가게 된다 (4:2). 여기서 사용된 관이 연결되는 저장소(receptacles of the pipes, 역자주: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음)로 해석된 히브리어 용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기에 전체적인 모양이 조금 분명치 않다. 이는 가지에서 연장된 것이며, 등잔의 주발로 기름을 흘려내는 두 개의 금 관과 연결되어 있다. 이 연장된 것의 정확한 정체는 기름이 등잔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매개체라는 것 외에는 명확하지 않다.

- E. 기름부음 받은 자 들: 두 가지는 주님 곁, 앞에 서는 기름부음 받은 두 사람을 말한다 (4:14). 그분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보이셨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기름의 아들들을 말한다. 5 백년 후에 사도 요한은 “감람 나무 사역”에 관한 더 많은 통찰을 얻는다 (계 11:4). 이들은 예언을 하며 기적을 행하며, 많은 자들에게 영감과 통찰력의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부음을 받은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들이 될 것이다.

<sup>3</sup> 나의 두 증인 [선두주자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sup>4</sup>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sup>6</sup>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 11:3-6)

1. 주 앞에 서 있는: 이것은 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이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했는데 (신 10:8-9), 이는 대제사장 (삿 20:28), 사독의 제사장들 (겔 44:15), 엘리야 (왕상 17:1), 엘리사 (왕하 3:14), 세례 요한 (요 3:29), 두 증인들 (계 11:4)과 천사들 (눅 1:19; 계 8:2)도 동일했다.

2. 기름의 아들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통해서만 온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 곳은 기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 F. 온 세상의 주: 이는 그들의 사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임을 보여준다.

G. **금 기름:** 금 기름은 가장 순전하며 가치 있는 기름을 말한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 기름은 주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일하심과 기름부음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심과 연관이 있다 (4:6). 메시아(히브리어)와 그리스도(헬라어) 모두 기름 부음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1.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등잔대가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잔대에 기름을 제공했다 (출 27:20-21; 30:7-8). 그들은 올리브를 거두고 으깨는 과정을 통해 기름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손으로 직접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했다. 스가랴는 뭔가 특이한 것을 보았다 - 기름을 만들 필요도, 등잔대에 손으로 기름을 채울 필요도 없었다;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그릇에 기름을 떨어뜨렸다.
2. 기름은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흘렀고 이것은 이전에 약속되었던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 (4:6-7). 기름의 공급은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그 누구도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올리브를 으깨거나 등잔대를 직접 채우지 않아도 되었다. 그 대신에, 두 감람나무는 즉각적으로 기름을 만들어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결코 끊이지 않는 기름은, 인간적인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것을 상징한다.

H. 이 두 감람나무의 약속은 왕과 제사장의 직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름부음을 받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 처음으로 성취되었다. 이 둘만이 구약에서 이 섬김을 위해서 공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직임자들이다. 이 두 사람은 궁극적인 **기름의 아들이신**, 두 직임 (왕과 제사장)이 결합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6:12-13; 시 110:2-4).

1. 이 두 **기름의 아들들**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완료하고 유지해나가는** 일을 위임받았다. 이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격려하는 일, 그리고 성전이 커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을 해나가는 임무이다.
2. 주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어려운 일에 대해 (4:10),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초자연적인 도움과 영감을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에 임할 축복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충성됨과 기름부으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등잔대로 상징된) 사람들이 (등잔의 연료인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님에 의해 영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I. **요약:**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 처음으로 성취된 두 감람나무의 약속은 두 증인들에 의해 더 크게 성취될 것이다. 나는 궁극적인 **기름의 아들**인 예수님과 동일한 영으로 살게 되는 많은 작은 “**기름의 아들들**”이 있게 될 것을 믿는다.

J.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마지막 때의 리더십들이 신랑이신 주님 앞에서 기름을 기경하도록 권고하셨다 (마 25:1-13).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두 사람에게 주어진 **기름의 아들들**로의 초청을 모든 이들에게 넓히신 것인데, 이를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기름을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며 노력하는(마 25:8) **지혜로운 처녀**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K. 스가랴서 4 장은 성전을 짓는 일에 성령께서 명확하게 일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적합한 메시지인데, 이는 그들이 기도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